

윤 대통령, 인사 단행... 총선 후 개각 작업 '본격화'

장관급 3명 교체, 기재부 출신 기용
방통위 이진숙·금융위 김병환 내정
인사혁신처장 등 차관급 6명 인사도
"민생 경제 최우선"...이달 후속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김완섭(왼쪽부터)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장 후보자, 김병환 금융위원회장 후보자가 인선 브리핑에서 각각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장관급 3명과 차관급 6명의 인사를 단행하며 총선 후 개각 작업을 본격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56)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방송통신위원회장 후보에 이진숙(62) 전 대전 MBC사장을, 금융위원회장 후보에 김병환(53)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이번 인사는 기재부 출신 발탁과 더불어 여민중당의 방통위위원장 탄핵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

환경부 장관 후보와 금융위원회장 후보 두사람 모두 기재부 출신이다.

금융위와 환경부 출신 대신 기재부 내 경제 전문가를 부처 수장으로 낙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생 경제 최

우선이라는 기조에 맞춰 환경도, 금융도 모두 경제전문가를 기용해 민생 경제 중심으로 쟁기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임 방통위위원장 사표 수리 후 이틀만에 후임에 이진숙 전 대전 MBC사

장을 지명한 것은 야권의 잇단 위원장 탄핵 추진에 맞대응하는 동시에 방통위 수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차원으로도 읽힌다.

이 후보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이는 민주당이 만든 것"이라며 "하루빨리 방통위가 5명의 상임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민주당 몫의 위원 추천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방통위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인사혁신처장에는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박범수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을 발탁했다.

또 농촌진흥청장에는 권재한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산림청장에는 임상섭 산림청 차장,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김재홍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용산 출신 비서관 3명이 차관으로 승진 임명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환경부·노동부 차관에 각각 이병화 기후환경비서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비서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중으로 일부 부처 수장들을 순차적으로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정식 고용노동부·조규홍 보건복지부·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김두관, 당 대표 출마... 이재명 대항마 나서나

李, 다음주 연임 입장 밝힐듯



경남지사 출신인 김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부산·울산·경남 선거의 구심점이 돼 달라는 당 지도부 요청에 따라 경기 김포갑을 떠나 경남 양산에 출마해 당선됐다. 22대 총선에서 영남권 선대위원장을 맡아 '낙동강 벨트'에서 선전을 다짐했지만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에 패해 낙선했다.

김두관(사진)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이른바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 속 최고위원 후보마저 친명(친이재명)계 일색으로 채워지는 당내 상황을 우려해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이르면 전당대회 이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9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 중진 의원 등 일부에서 김 전 의원 출마를 만류하는 목소리도 있어 김 전 의원의 최종 출마 확정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 전 대표를 추대하는 분위기에 당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다"며 이 전 대표 추대론에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재명 전 대표는 다음주 연임에 관한 입장을 밝히며 민생 중점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이 전 대표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대략 다음주 화, 수 정도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의 후보 등록시점"이라며 "(이 전 대표가) 그 시점을 전후한 시기에 본인 입장을 밝히고 그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채상병 특검법' 野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22대 첫 입법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총 190표중 찬성 189표
국힘, 개원식 불참기로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의 표결에서 총 투표수 190표 중에서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채상병 특검법을 가결했다.

야권 단독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특검법은 이후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국회로 재송부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앞으로 특검법 재의결(200표)에 필요한 여당 이탈표(찬성표) 확보를 두고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24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며 특검법 저지에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토론 종결 동의 표결을 강행하면서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됐다.

이에 항의한 국민의힘은 우원식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5일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회 개원식 불참을 공식 선언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탄핵 시도로 법치를 흔들고,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의사일정으로 국회를 파탄시키는 현실에서 국회 개원식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다"며 "여당 없는 개원식에 대통령을 초청해서 하는 것도 저희들은 원치 않는다"며 윤 대통령에게 불참을 요청했다.

현직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은 전례가 없는 일이 된다.

이에 따라 여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추후로 연기됐다.

서울=김선욱 기자

권항엽 "철강, 국가첨단전략기술 포함" 법안 발의

권항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사진)은 4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철강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 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현저한 기술로 정의하고 있고, 구체적인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고시되어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와 함께 철강도 법에 명시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술과 생태계의 산업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정준호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으로 올려야" 법안 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사진)은 5000만원에 불과한 예금보험제도의 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금융업종별 보험금의 한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국회의 감독 권한을 보다 강화했다.

정 의원은 "지급 한도를 현실화하고 업권별로 보호 한도를 차등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안정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여의도서 '제9회 기계설비의날 기념식' 개최

기계설비의날기념식 조직위원회(위원장 조인호)는 4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룸에서 제9회 기계설비의날 기념식을 가졌다.

'다시 뛰는 건설산업, 기계설비 앞장서자'라는 슬로건으로 이날 열린 기념식에는 대한기계설비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강성희) 산하 5개 단체와 6개 유관 단체 소속 회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 김운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등이 참석해 기계설비인들을 격려했다.

조인호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독립된 법 체계를 갖춘 기계설비산업은 대도약을 위해 자금의 위기를 도약의 징검다

리로 삼고 △기계설비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매진 △대국민 홍보 강화 △다시 뛰는 건설산업을 위해 기계설비가 적극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기념식에선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공헌한 원종순 (주)세원엔추리 회장(대통령 표창)과 최성열 (주)우노건설 대표(국무총리 표창), 강용태 고려대 교수(국토교통부장관 표창) 등 28명이 표창과 공로상, 포상장 등을 받았다.

서울=김선욱 기자